

5/31/26

설교 제목: 안식일의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쉼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마태복음 12 장 9-21 절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다(막 3:1-6; 눅 6:6-11)

9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10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11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12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13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14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15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16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17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8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19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20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고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21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에 대해 논쟁을 하신 후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안식일을 맞아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9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이날이 밀밭에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그 안식일과 같은 안식일이 아니라는 것은 누가 복음의 기록에서 알 수 있습니다.

(눅 6:6)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마태는 회당을 그들의 회당이라고 명시함으로써 그가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AD 50-70 년경) 이미 세워져 있었던 초대 기독교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유대교 회당간의 거리감을 나타냅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유대인들이 본격적인 디아스포라 시대를 이루게 되었던 바벨론 포로기와 학사 에스라 통치 시기에 성전과 율법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유대인들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과 절기 때마다 그들의 회당을 방문했으며,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으로 불리우는 사람들의 경우 매주 회당을 방문하였습니다.

AD 70 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약 480 여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한 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송사하기 위해 일부러 데려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고소할 증거와 명분을 찾기 위해 그의 행동을 줄곧 주시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좀처럼 책을 잡히지 않자 이번에는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진퇴양난에 빠뜨리기 위한 의도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법적인지를 묻습니다.

10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저들은 이같은 질문으로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고 병자를 고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불행한 처지에 있는 병자를 외면함으로 제사보다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라는 당신의 지난 번 가르침을 파기할 수도 없는 교묘한 상황을 연출하여, 예수님을 위선적이고 편파적이며 일관성 없는 자로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유대인 조상의 유전에 의하면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울 경우에는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수위를 말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은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상태가 아닌, 손이 마른 이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는 안식일 규정에 어긋난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율법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회당에서 이러한 악의에 찬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을 경우를 예로 들어 안식에 선을 행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든 규정에 의하면 안식일에 동물이 웅덩이에 빠졌을 경우 일차적으로 안식일을 무사히 지낼 수 있을 정도의 음식을 넣어 주도록 되어 있지만, 만약 목숨이 위험할 경우 사람이 직접 그 동물을 끌어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이 양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며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11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12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13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웅덩이 빠진 양은 건져낼지 언정, 손 마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는 마음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인 예수를 송치하려는데 급급해 불쌍한 그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만일 안식일에 동물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허용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의롭고 당연한 일이라고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규정된 법규만을 지키는데 관심을 가졌으나,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인 자비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안식일에도 적극적인 의미에서 선을 행하여야 한다고 하심으로 규정을 뛰어 넘으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신 예수님께서서는 환자에게 손을 내밀도록 명령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민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른 손을 고칠 수 있다고 믿고 손을 내민 손 마른 자는 예수님의 창조적 능력 앞에 온전하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이 쉼을 누리는 복된 날입니다.

억압이 아니라 지친 영혼을 해방하는 날이고 즐거움의 날입니다.

안식일이라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복음의 혜택을 누리는 일에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보다 크신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안식일의 주인을 고발하는 어이없는 일을 저지릅니다.

저들은 '하지 말아야 할 일'에 사로잡혀 '해야 하는 일'의 사명도 잃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제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더 이상 논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율법 해석에 기초해서 매고 푸는 권세를 행사하는 자신들의 권위에 위협을 느끼게 된 저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 방법을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안식일 사건은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게 만든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저들의 의도를 아시고 그곳을 떠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임에도 병을 고치고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다 고쳐 주십니다.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인 공활을 실현 하십니다.

14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15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16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예수님께서서는 고생하며 유리하는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냉담하지 않으시고 궁극적인 구원을 가져다 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들의 메시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병 고침을 받은 자들에게 함구령을 내립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한 메시아 사역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셨던 것입니다.

아직 때가 아닌데 당신을 적대시 하는 이들에게 더욱 적대감을 불러 일으켜 당신이 해야 할 사역을 마치지 못하게 될까 염려하셨습니다.

또한 당신이 기적을 행사하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 사람들은 당신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십자가 죽음을 통한 메시아 사역을 이루지 못하게 되니 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왔던 메시아십니다.

유대인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의 메시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당신의 길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마태는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 말씀의 성취임을 밝힙니다.

17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8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19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20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21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써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종이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교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신 종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은 종이십니다.

심판을 이방에 알리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종인 메시아의 독특한 임무입니다.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한다는 것'은 율법을 통해 계시되고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예수께서 재천명하시고 그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우선 전파될 것이지만, 그들의 핍박과 배척으로 이방인에게로 확장될 것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예수님의 선교 지상 명령에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행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서는 낮아짐과 겸손으로 정의를 선포하십니다.

'상한 갈대'는와 '꺼져가는 심지'는 연약하고 무력한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상한 갈대'는 고통과 좌절로 인해 심령이 산산히 부서져 쇠잔해 있는 영혼을 가리키며, '꺼져가는 심지'는 마지막 소망마저 다 없어져가는 인생, 양심의 빛을 상실해 심령이 어두워져가는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마태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를 세리들과 죄인들, 한쪽 손 마른 사람과 같이 바리새인들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로 나타냅니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는 고난의 종인 메시아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의 영광을 통해서가 아니라, 온유와 겸손과 섬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의 악의 세력 위에 세우게 될 때까지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정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굳게 세울때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초대하고 회복시키시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정의로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사 42:1) 내가 불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사 42:2)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사 42:3)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사 42:4)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사야는 메시아를 행위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언했습니다.

따라서 마태는 이 예언이 당시 바리새인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받는 예수의 모습 속에서 성취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마태는 무리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예수의 사역이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사역과 일치함을 강조합니다.

결국 아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종을 통해 종의 역할을 수행하실 것입니다.

종의 낮아짐을 통해서 사람들은 회복되며, 이 회복은 열방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긍휼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손 마른 사람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고만 했지, 그의 아픔과 슬픔, 절망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셔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당신의 생명이 더욱 위협을 받게 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병자들을 긍휼로 품으셨고,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참된 쉼을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울법의 무거운 짐을 지웠지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초청하여 안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십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지쳐 있습니까?
죄책감과 후회 속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질병과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소망마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 모두 우리를 얽매는 죄와 염려와 두려움의 올가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참된 안식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갑시다!
그분의 멍에는 쉽고 그의 짐은 가볍습니다.
그분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상한 갈대를 회복시키는 긍휼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고, 또 우리가 받은 그 긍휼을 세상에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